

지역 소식통

전북 대표관광지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고창군이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34곳을 다니며 스탬프 인증을 받는 여행프로그램이다. 3개의 테마(고창읍성 투어로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로드, 고창관광 투어로드)로 구성돼 있다. 스탬프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선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전북 고창군'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앱에 접속하면 참여자의 현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투어 대상지가 순차적으로 노출된다.

또한 해당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탬프가 화면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농기센터,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진행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우)에서 추진하는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다.

총 10회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교육생들의 실력과 여유가 눈에 띄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매 수업 때 만든 작품을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누어먹는 즐거움도 매우 크고 직접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혼자 만들어 보기도 하는 과정이 뿌듯했다며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애정을 드러냈다.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며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교육을 참여하여 배움의 기쁨을 함께 한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격증은 양곡관리위원회와 우리쌀유통지원사업자 각각 25명 취득하였으며 전체 수강생의 80%에 달하는 인원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

고창군, 태풍 호우 예방대책... 현장점검 등 추진

전북 고창군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과 예방대책에 나섰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5월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추진한다. 군은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과 재난 대비 물자점검 등을 마치고, 현장 중심의 대비태세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재해취약지구, 산사태, 하천범람, 세월호 침수유류 취약도로, 태양광발

전시설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7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무리했다.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 현장상황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책임관(공무원)과 현장관리관(이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을 복수 관리자로 지정해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내 재해약자인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담당자를 지정해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상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수방자재를 읍면에 전진배치해 붕괴 위험지역과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김경수 재난안전과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이 2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행정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치질 없는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군민과 함께 펀드모금으로 투명한 선거 치를 것"

고창군,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등록

'한번 더 높을 고창', '한번 더 유기상'을 외치며 재선을 도전하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25일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유기상 예비후보는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 깃발아래 지난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발을 갈고 씨를 뿌렸다. 서서히 꽃이 피는 고창의 봄을 맞이



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4년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군민들과 함께 열매를 맺어 '한번 더 높을고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브로커에 의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선거도 군민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다 투명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펀드모금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유기상 한번 더 높을고창' 펀드는 5월 2일부터 고창군수 공직선거비용인 1억 2천 1백만원의 목표로 달

성시까지 모금한다. 학생과 공무원을 포함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사람 당 1만 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참여 가능하다. 모집된 펀드 금액의 상황은 오는 8월 3일부터 원리금 일시상환(원금+이자, 연 2% 일할계산)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유기상 예비후보는 "잘 달리는 말은 채찍을 가해 더 잘 달리게 해주어야 한다"면서 "펀드모금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힘을 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심으로 군민을 섬기겠다. '한번 더 높을 고창'을 위해, '한번 더 유기상'의 손을 잡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영농철 맞이 농가 일손돕기 당부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행정 주문

최재용 정읍시장 권한대행이 2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행정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치질 없는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아직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방역 긴장감을 늦추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이 속도를 내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백신 접종 등 감염병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 당분간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책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시정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공약 개발 참여와 업적홍보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하면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시 즉시 응수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난이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가운데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회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거부... 무소속 출마선언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공천은 헛구호만 되고 네 번째 부안군수 경선 도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틀러리 서지 않겠다"고 평생 함께한 민주당을 탈당해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공천된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거부한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부안군수 경선후보자로 공천됐지만 많은 군민들이 경선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며 "차라리 무소속으로 뛰려는 군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당당한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오죽하면 경선에 불



참하겠느냐"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등 7대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개혁과 혁신공천을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위는 태

양광 투기 등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하는 권익형 예비후보를 컷오프하지 않고 경선대상자로 확정했다"며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와 경선을 하는 것은 잘못을 눈감아주는 비겁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형 후보에 대해 "태양광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진행중인 땅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서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군수가 허가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토목설계비 등 1억원 정도의 제반 사업비에 대한 거래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민주당은 부도덕한 후보를 부안군민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올바른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 박람회 우수지자체 상 수상

정읍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년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시는 박람회 기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참가자들에게 정읍시만의 지역 감성 소개와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도시민 청년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정읍시의 지원정책 소개와 귀농·귀촌 준비과정, 농촌 정착 성공사례 등을 현실감 있게 상담했다. 또한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에



게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운영되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등을 필두로 정읍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